

'실적 저조'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2년 반 만에 폐지

광주시, "유사 제도 존재, 실수요자도 적어"

정다운 시의원 "전임 시장 위한 기구" 지적

광주시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한 '의향광주 법률지원단'을 2년 여 만에 폐지키로 했다.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든 실수요자도 적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데다 설치 배경을 두고

도 곱잡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일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2020년 3월 설치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피해시민에 대한 법적조력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중이나, 무료법률 상담실과 행정심판 국선대리, 법률상담터 등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실수요자가 많지 않아 관련 사업을 폐지해 예산을 아끼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법률지원단 출범 후 현재까지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고작 3건으로, 이 중 한 건만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지극히 사적이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효용도가 낮자, 시는 지난해 홍보 강화와 함

께 역을 피해 입을 '시민'의 범위를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제 성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법률지원단 운영 배경을 놓고 뒷말도 나온다.

광주시의회 정다운(복구2) 의원은 최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이는 시가 전임 시장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지원단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슬비기자

"잊혀지는 미안마 민주화... 오월 광주가 손 놓지 말아야"

인권단체 '드리머스' 박태상 대표, 답사

"오월 광주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안마와 다시 한번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인권 단체 '드리머스' 박태상(51) 대표는 19일 "미안마 민주화운동이 6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안마 국경 지대에서 현지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접촉했다. 현지 상황을 두 눈으로 봐야 체계적 연대·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미안마 현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안마 군부가 벌인 참상이었다. 박 대표는 군부가 국경 지대 주민들의 저항세력 가담을 막고자, 마을 주변에 지뢰를 심어놓고 공중 폭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답사기간 중 국제사회에 미안마 내 참상을 알리고자 활동하는 단체를 두루 만났다.

박 대표가 만난 단체 가운데 하나인 '뮤직포 체인지'는 저항 정신이 담긴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시위대에 힘을 실고 있다. 공습 대상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도 구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최전방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저항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단체 등도 난민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미안마 민주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지 예술가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로서 시민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답사로 미안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고 현지 활동 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사회가 꾸준히 미안마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도, 아동보호 민관 협력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19일 국립나주수체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어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남 22개 시군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간 역할 공유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을 다졌다.

광주지역 대학 수시모집 전문직학과 경쟁률 ↑ ...조선대 치의예과 33.8대 1

조선대 5.2대 1·호남대 4.6대 1·광주대 4.24대 1

광주지역 일선 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직 중심의 학과가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광주지역 대학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조선대의 경우 총 3762명 모집에 1만9445명이 지원해 평균 5.2대 1(정원 내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일반전형) 4.6대 1, 학생부교과(군사학과전형) 3.3대 1, 학생부종합(일반전형) 7.7대 1,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5.4대 1, 실기/실적(실기전형) 3.6대 1이다. 학생부교과 중 의예과 25.2대 1, 치의예과 38.8대 1, 약학과 1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에서 의예과가 13.4대 1, 치의예과 21.3대 1, 약학과 1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 의학계열을 모집하는 학생부종합

합에서는 의예과 24.4대 1, 치의예과 25.7대 1, 약학과 23.0대 1의 경쟁률이다.

각 전형별 모집단위에서는 간호학과, 지구과학교육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언어치료학과, 건축학과(5년제) 순서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일반전형)에서는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경찰행정학과, 컴퓨터공학과, 행정복지학부, 문예창작학과, 소방재난관리학과가 순서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실기·실적(실기전형)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문예창작학과, 태권도학과 순서로 경쟁률이 높았다.

호남대는 1572명 모집에 723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6대 1을 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가 38명 모집에 443명이 지원해 11.7대 1, 임상병리학과 25명 모집에 234명이 지원해 9.4대 1, 간호학과 150명 모집에 1272

명이 지원해 8.5대 1, 응급구조학과 50명 모집에 337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치위생학과 42명 모집에 281명이 지원해 6.7대 1, e스포츠산업학과 35명 모집에 224명이 지원해 6.4대 1, 외식조리학과 5.5대 1, 유아교육학과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1407명 모집에 5966명이 수시모집에 지원해 평균 4.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간호학과 6.79대 1, 호텔외식조리학과 5.6대 1, 뷰티미용학과 5.25대 1, 유아교육과 5.05대 1, 경찰·행정학부 4.95대 1의 순서다.

지역학생전형 학과별 경쟁률에서는 유아교육과가 11.25대 1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으며 간호학과 11대 1, 뷰티미용학과 8.38대 1,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부가 7.67대 1이다. 광주대는 오는 10월 28일 일반학생전형의 면접고사(간호학과는 28-29일)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현기자

전남 여행지 곳곳에 민간 관광안내소 운영

59곳 '청정·힐링 전남 쉬다가게' 지정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객에게 전남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청정, 힐링 전남 쉬다가게'라는 민간 관광안내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간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소의 운영시간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도록 관광지 인근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관광 안내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여행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곳곳에 59개 민간관광안내소를 개설, '청정, 힐링 전남 쉬다가게' 현판을 내걸고, 전 열대에 관광 안내 홍보 책자와 지도 등을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여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민간 관광안내소를 홍보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 방문후기 이벤트를 10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 150명에게 '남도장터 2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가을 산행 버섯·잣·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순천국유림, 10월 말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내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임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순천=김승호기자

본사 인사

김현근

지역사회부
광양/여수지역 국장
2022년 9월 19일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쁨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능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저소득층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5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